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4대 중 1대 꼴 '위반'

개정 도로교통법 오늘 시행...도심 횡단보도 미리 가봤더니

초등생 횡단보도 건너는데 차량 진행 '아슬아슬' 보행자 대기중에도 우회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광주 도심 횡단보도를 살폈더니 통행 차량 4대 중 1대꼴로 개정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가 11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광주시 북구 말바우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을 지켜본 결과, 특정 방면 3차선 도로(4차선은 불법 주정차로 통행 불가)를 통해 모두 58대가 우회전을 했다. 이 가운데 38대가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를 했다. 나머지

20대는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했다. 개정법을 적용할 경우 이들 차량 20대는 단속대상이다.

개정법은 통행 차량 기준, 전방 차량 신호·우측 횡단보도 신호 색과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는 때에는 우회전할 수 없게 돼 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광주동부경찰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들이 11일 공동 5거리에서 12일부터 적용될 우회전시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계도하고 있다. /나병주 기자 mjna@

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오토바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각각 4만원,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 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같은 시각 광주시 서구 KBS사거리 시청 방면 우회전 횡단보도도 개정법대로라면 단속 대상이 적지 않게 관찰됐다. 1시간 동안 80대가 가려면 끝 차선을 타고 우회전을 했지만, 이 가운데

15대(약 18%)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했다. 횡단보도에 녹색등이 켜져 있고 사람이 지나가는 데도 적잖은 차량이 우회전했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단속 대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 후 통과해야 한다. 이날 오후 광주 도심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도 적지 않은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주행하는 모습이 보였다.

비록 개정법 시행 이전이지만, 광주 운전자들은 대부분 선행 차량이 법규를 위반하면 뒤따라서 위반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심중팔구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어도 그사이를 헤집고 빠져나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이유는 우회전 보행자 사고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5년(2017년~2021년) 광주지역 우회전 교통사고로 매년 3~6명이 숨졌다. 올해도 6월까지 광주에서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는 총 295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10명이 다쳤다.

광주경찰청은 법 시행 후 1개월 동안을 계도기간(7월 12일~8월 11일)으로 정하고,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방법

● 전방 차량신호 적색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일시정지

● 전방 차량신호 녹색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일시정지

●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

일시정지

● 서행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서행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시, 신호위반 책임 있음
·일시정지: 바뀌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서행: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없으면 우회전(7월 12일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범칙금: 승합 7만원·승용 6만원, 벌점: 10점

자료/경찰청 연암뉴스

조선대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기관 선정

2030년까지 치매 진단·예방 기술 개발 위한 사업비 81억 확보

조선대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 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업명은 '대사 분석 및 정밀진단 플랫폼 기반 치매 치료 및 예방 융합 연구'로 치매의 정밀진단 및 대사 지표·마이크로바이옴과의 연계성 규명을 통한 치매 진단 및 치료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에는 세브란스병원(총괄)과 조선대병원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아리바이오, ㈜코렘,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참여하고, 사업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이다.

조선대병원은 광주치매코호트 컨소시엄(5주관)에서 주관기관으로 참여, 치매 진단·예방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비 81억원을 지원받는다.

주요 사업내용은 ▲광주치매코호트 기반 치매 예방

위 생체역로 DB 구축 ▲대사체·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규 지표·유해균 발굴을 통한 치매 진단기술 개발 ▲대사물질 및 치매 유해균의 치매·뇌염증 연관 기전연구 ▲치매 예방 및 억제제를 위한 신규 프로바이오틱스 발굴 및 생균 치료제(LAB) 개발 등이다.

연구책임자인 하정민 조선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세계적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환자가 계속 늘고 있고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치매 진단 및 예방 기술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ae@kwangju.co.kr

'송강'이나 '솔가람'이나

담양 대안학교 송강고, '솔가람'로 개명 추진 중진회 "기축육사' 송강 정철 굴레 못 벗어나"

역사 논쟁으로까지 비화한(광주일보 2021년 1월 8일자 12면) 담양 송강고등학교 교명을 '솔가람고등학교'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송강고 등에 따르면 학교는 오는 13일 학교 시청각실에서 학부모, 학교와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교명 개명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학교는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온 교명 개명 작업 과정과 솔가람고로 개명하는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학교측은 그동안 양지고, 담쟁이고, 솔가람고 등 송강고를 대체할 교명들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그 결과 솔가람고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아 개명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다.

학교 관계자는 "공청회를 가진 뒤 전남도 교육청의 교명 개명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 1일부터 교명을 솔가람고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 선조 재임 시기인 기축년(1589년) 위관(우의정)의 직책을 맡은 송강(松江) 정철의 호와 같은 교명이 반대했던 일부 중진회는 소나무를 지칭하는 '솔'과 강(江)의 옛말인 '가람'을 합성해 만든 솔가람고도 정철의 호가 연상되기 때문에 솔가람고로의 개명을 반대하고 있다.

광산 이씨 중진회 관계자는 "송강 정철의 굴레를 못 벗어나는 속임수 개명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앞서 광산 이씨, 나주 나씨, 문화 류씨, 고성 정씨, 전주 이씨, 창영 조씨 중진회장 등은 정철이 주도한 '기축육사'로 수많은 호남 인재들이 화를 당한 것을 거론하며 송강고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학교가 개명을 추진해왔다.

송강고는 담양군 봉산면 양지리 옛 봉산초 양지분교에 지난해 3월 개교한 전남 최초 민간 협업형 공립 대안학교다./유연재 기자 yjyou@

이주희 동신대 제9대 총장 선임

동신대학교 제9대 총장에 이주희(사진) 교학부총장이 선임됐다.

11일 동신대에 따르면 이 부총장은 최근 학교법인 해인학원 이사회의 총장 선임 결정에 이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동신대 제9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026년 7월 14일까지 4년이다.

이 총장은 숙명여대에서 교육심리학 학사,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경제대학원 MBA 과정을 마쳤다. 지난 1997년 동신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임용돼 교무입학처 부처장, 입학교



류처장, 기획협력처장, 국책사업총괄관리부처장, 교육혁신원장, 교학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외적으로는 교육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전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여성분과 위원,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이사를 역임했다.

고(故) 이상섭 초대 총장의 1년 5개월 중 둘째다. 이 총장의 취임식은 15일 동신대 중앙도서관 1층 대강홀에서 열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NAVER 씨앤에이논술 검색 **대치동 씨앤에이논술**

독서·토론·논술 설명회

광주남구 ☎062-400-3535
★7월 11일(월) 오후 1시

무안남악 ☎061-285-2663
★1차 : 7월 12일(화) 오전 11시
★2차 : 7월 20일(수) 오전 11시

여수 ☎061-810-0059
★1차 : 7월 13일(수) 오전 11시
★2차 : 7월 19일(화) 오전 11시

※사전 예약 필수!

1. 문해력의 기본은 독서입니다.
2. 독서는 의지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3. 토론은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입니다.
4. 논술은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글쓰기입니다.

※참석하시는 분께는 광고 도서를 드립니다!